



공속민투위

- 제23-04호
- 발행인: 의장 손덕현
- 발행처: 선전실
- 발행일: 2014년 9월 4일(목)
- 전화: 052)287-6541~2
- 배포확인: 사업부대표 이주우

현장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해방투쟁

통상임금 쟁취없이 14투쟁 종결없다!

사측 교섭장 철수! 통상임금 줄수 없다며 오히려 협박(?)

지난 2일(화) 사측이 교섭장을 철수하는 기가막힌 일이 발생했다. 조합원을 능멸하는 안을 던져놓고 얼마나 노동조합을 우습게 아는지 이것을 못받겠다면 임금성 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내지 못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단체교섭을 시작한지 4개월째다. 21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노측 요구안 중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다. 집행부는 추석전 타결을 위해 사상 유래 없는 장시간 실무교섭과 휴회를 거듭하면서 구걸협상을 했지만 사측은 끝내 거부했다. 남의 돈 떼어먹고 저렇게 큰소리치며 협박하는 사측에 대해 더 이상 인내는 의미없다. 총파업으로 응징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이경훈 지부장, 통상임금 포기하자고 종용! 교섭장 밖 300여명 모여 교섭결렬 촉구!

사측이 철수하며 던져놓은 '위원회를 만들어 통상임금을 추후 논의하자'는 안에 대해 이경훈 지부장은 교섭위원들을 모아놓고 이 안을 반자는 입장을 종용했다. 교섭위원들은 이 안을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저항했고, 교섭장 밖에는 이미 300여명의 대의원과 활동가들이 모여서 교섭을 결렬하고, 쟁대위를 열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경훈 지부장은 23시가 넘어서 마지못해 교섭중단을 선언하였다. 5대 집행부가 파업이 두려워 추석연휴에 목을 매고 끝내려는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사측을 압도할 실력과 논리가 부족해 빚어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투쟁의 전략과 전술부재가 사측을 굴복시킬 그 어떤 대안도 없이 끝까지 사측에 구걸협상으로 4만 7천 조합원의 자존심만 짓밟고 말았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은 통상임금 포기!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

사측은 철저히 조합원을 기만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소급분은 커녕 적용시점에 대해서조차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있는 단체교섭시기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적용시점을 일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통상임금 적용시점은 없고,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하여 2015년 3월 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을 합의한다.
-9월2일 23시에 제출된 사측 최종안-

특히 타 사업장에서 진행된 통상임금 관련한 합의 내용을 보면 현재 사측이 왜 그토록 '임금체계 개편위원회'를 부리는 꼼수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 | |
|------|--|
| 한라공조 | 상여금 750%중에 600%를 통상임금 적용으로 합의했지만 기존에 있던 수당을 삭감하면서 임금 하락 효과로 지회에서 재협상 요구 중 |
| 한국GM | 상여금 700%중에 700%를 통상임금 적용으로 합의했지만 기존의 연월차수당을 150% → 100%로 삭감하면서 일부는 오히려 임금 하락효과 |
| 만도 | 상여금 750%중에 600%를 통상임금 적용으로 합의하면서 연월차 수당을 150% → 100%로 삭감하고 심야할증을 삭감하여 임금하락효과 |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적용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그동안의 임금을 손보기 위한 방편이며,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구체내용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적용은 물건너 가게 되는것이다. 또한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축소하기 위한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이것은 현 답협에 보장돼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 | |
|----|---------------------------------------|
| 적용 | 연장근무, 휴일근무, 심야할증, 연월차 수당, 월급제 O/T 26% |
| 항목 | 기술직 상여계산 O/T 30 시간, 안전교육시간, 조회시간 |

통상임금 적용, 기술직만이 아니라 일반직·연구직·영업직·정비직 해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경우 교대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일반직, 연구직, 영업직, 정비직의 경우 O/T 26%를 적용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직군에 인상효과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측은 전 직군에 대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 | | | |
|-----|-----------|-----|-----------|
| 일반직 | 6,700,533 | 영업직 | 6,291,118 |
| 연구직 | 6,293,844 | 정비직 | 7,666,895 |

<통상임금 상여금 O/T 26% 적용 시 연간 인상분>

'쟁대위 중단하고 정상근무'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지부장의 독단과 독선

지난 2일(화) 교섭중단을 선언한 지부장은 교섭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섭중단 및 쟁대위 중단과 정상근무'를 선언했다가 어제(3일) 문자로 지난 3차 쟁대위회의의 결과를 통보했다. 쟁의행위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중앙쟁대위가 아닌 지부장의 일방적 결정은 사업부대표와 대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섭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할 집행부가 사측에게 겨냥해야 할 충구를 대표와 대의원, 활동가들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추석전 타결은 물건너 갔다. 따라서 더 이상 구걸협상이나 타결시점에 연연할게 아니라, 휴가이후 5대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해 사측을 굴복시키고 무너진 조합원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부당해고·손배가압류·고소고발 철회 없이 민주노조는 없다!



지난 1일(월) 전국의 고소고발자들이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모여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33명의 고소고발자와 147억원이나 되는 손배가압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노조 사수의 염원이다. 손배가압류자들에게 월급과 통장 압류는 기본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가압류까지 들어오고 있다. 5년 전부터 사측이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버티자 3, 4대 집행부는 현장의 중요관심사항을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의 근간이며 현장활동의 중심인 활동가들에게 족쇄가 되는 손배가압류와 고소고발을 철회시키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14년 들어 사측에 의해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로 인해 누적된 현장 활동가 인원수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번 14년 단체교섭에서 해고, 손배가압류(월급·통장·부동산 압류), 고소고발 문제를 말끔히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조의 근간이 흔들려 사측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사측, 8/8 조기 도입 거부

8/8 조기도입에 대해 사측은 조기도입은커녕 8/8 도입에 대한 내용조차도 2012년 합의서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의견접근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합의서에 이미 올해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근추위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설비투자계획 등을 진작에 근추위에 제출하여 보다 더 세밀한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또다시 날짜만 다시 잡는 의견접근 안은 4만7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경훈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신입사원 연속2교대수당 동일 지급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현장간부(조,반장, 계장, 과장)수당의 일방적인 인상에 대한 일반조합원보상차원으로 요구한 공통수당 또한 사측은 못주겠다는 뽕배짱이다. 그런데 뭐가 급해 합의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추석 전 타결은 이미 물 건너 갔다. 그런 만큼 추석연휴 이후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4만7천 조합원을 우롱하는 사측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고 단체교섭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기본급 11% 삭감하는 빈껍데기 정년연장!

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자, 장기근속자들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건 없는 정년연장이 또다시 물건너 갔다. 촉탁계약직 꼬리표와 약간의 문구수정만으로 장기근속자들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은 의견일치이기 때문이다. 59+1세에 촉탁계약직 꼬리표를 떼면 당연히 정규직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임금 또한 마찬가지로 변한게 없다. 59세의 경우 58세의 기본급 기준, 그리고 59+1세의 경우 꼬리표만 뺀 기존 촉탁계약직의 총액연봉과 동일 지급기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단지 연월차 및 근속년수를 인정하되 기본급이 11%정도 삭감되면서 기존보다 수백만원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건강상 결격사유'에 대한 문구도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정년연장에 따른 혜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빈껍데기 의견일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협의를 통해 반드시 장기근속자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마땅하다.

이경훈 지부장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통상임금 포기하라는 사측이 문제지, 통상임금 쟁취하자는 사업부대표·대의원·활동가가 문제입니까?

어제(3일) 발행된 쟁대위속보를 보는 조합원들은 피 눈물을 흘렸다. 사측의 쓰레기 같은 제시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규탄도 없이 제조직의 담합이 문제라고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과연 제조직이 무슨 담합을 했는가?

'통상임금 쟁취 없이 14년 투쟁 마무리 없다'는 말은 이경훈 지부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다. 지난 최종 제시안에서 사측이 통상임금을 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면 교섭을 그만두고 지부장이 투쟁을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려운지 지부장은 계속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안을 받자고 교섭대표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설득이 안되자, 쟁대위속보를 통해 사업부대표와 대의원, 활동가들에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임금성 몇푼에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사측의 입장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지부장이 오히려 술선수범하여 자리를 박차고 투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상임금 포기를 받으면 추가 안을 제시하겠다는 사측에 대해 더 이상 눈감아 줘서는 안된다. 집행부는 충구를 분명히 겨누어야 한다! 14년 투쟁이 진행 중인 집행부가 제조직과 사업부 대표들을 비판하는 것은 명백히 분열을 획책하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이다. 집행부는 교섭중단의 이유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투쟁을 배치하여 사측의 뽕배짱에 썩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제조직은 조합원의 염원인 통상임금 쟁취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추석연휴 잘 다녀오십시오! 지난 여름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땀 흘리며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한 조합원 동지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전한 추석 귀향길 되시고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다시 만나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힘 차게 투쟁합시다!

- 금속민투위 조직원 일동